

이효리 “내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가수 이효리가 4일 오후 서울 화양동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정규 6집 '블랙' 발표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큰 화과 새 앨범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김진환 기자 kwanghin00@donga.com

9곡 작사 8곡 작곡...6집 '블랙' 발표
과거 화려한 퍼포먼스 앨범과 극과극
무겁고 어두운 사운드...“또 다른 나”

이효리는 다양한 모습을 가졌다. 무대에서 '섹시 카리스마'를 내뽐지만, 예능프로그램에선 솔직하고 털털한 모습으로 친숙함을 안긴다. 유행을 선도해 여성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고, 남성들에게는 가상의 여자친구였다. 걸 그룹 멤버에서 솔로가수로, 성공적 변신의 표본이기도 하다. 그런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1998년 핑클로 데뷔해 지금까지 사랑받고 뉴스메이커가 됐다.

4일 6집 '블랙'으로 4년 만에 돌아온 이효리는 데뷔 19년차에 또 새로운 도약대에 섰다. 솔로 데뷔곡 '텐 미니츠'나 '유고결' 같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연상되는 음악은 없고, 다소 무겁고 어두운 사운드의 음악으로 6집을 채웠다. 2013년 기타리스트 이상순과 결혼 후 제주에 정착한 뒤 이어온 자연친화적 생활방식과 새 음악이 담겨 있다.

이날 서울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연 컴백 기자회견에서 이효리는 “과거 모습만으로는 아티스트로서 발전이 없을 것 같았다”고 했다. 또 “내 안에 다양한 내가 있다. 한쪽 면만 사랑 받으면 다른 면이 아쉽다. 이번엔 내 어두운 면도 사랑받으면 좋겠다는, 가수로서 바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효리는 전작 5집 '모노크롬'에 어쿠스틱 사운드를 시도하며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6집에서 10곡 중 9곡을 작사, 8곡을 작곡하며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결모습으로는 더 이상 예쁘지 않을 거라 여기고, ‘깊이 있는 음악’으로 다가가지 생각했다. 내가 만든 곡으로, 내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는데 신경을 쏟았다.”

하지만 과거의 이효리를 기대했던 이들은 이 걸감을 느낄 법하다.

이효리는 “대중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으려 한 건 아니다”면서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겪어야 끝까지 살아남는 아티스트가 된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과도기라 여기고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효리는 현재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일상의 속살을 낱알이 공개하고 있다. ‘요정’이었던 핑클 당시 모습과 괴리가 크다.

“어려서부터 부유하지 않았고, 특별히 잘나지도 않았다. 연예계에 데뷔하면서 평범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과 구분지어 지내다보니 현실과도 멀어지게 됐다. 제주에 살면서 이웃과 스킨십을 하며, 화려하게 살면서 잊고 있던 내 모습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4년의 공백은 그런 평범함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기다린 시간”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 겨울 광장의 뜨거웠던 촛불 함성을 들으며 ‘서울’이란 노래를 만들었고, 이후 20곡이 순조롭게 만들어져 10곡을 주렸다. 남편 이상순과는 “서로 좋아하는 음악이 달라” 간여나 조연은 없었다.

“뮤지션은 나이가 들수록 음악의 깊이와 폭이 커지는 법이다. 나도 나이가 들어감에 내면을 키워야겠다 생각했다. 예전엔 예쁜 모습으로 사랑받았다면, 이제 세상에 관심도 더 갖고 고민도 더하면서 깊이와 울림 있는 음악으로 점차 사랑받는 음악인이 되고 싶다.”

이효리는 5일부터 1주일간 음악방송에 출연한다. 차후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싱글로 내겠다고 했다.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이효리의 음악’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김해숙·손현주·설경구·김윤진

‘한국영화를 빛낸 스타상’ 수상

배우 김해숙, 손현주, 설경구, 김윤진이 ‘한국영화를 빛낸 스타상’을 받았다. 이들은 한국영화배우 협회가 4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주최한 ‘한국영화를 빛낸 스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또 도경수와 윤아가 ‘한국영화를 빛낸 신인상’을 수상했다. ‘한국영화를 빛낸 감독상’에는 ‘공조’의 김성훈 감독, ‘한국영화를 빛낸 인기상’에는 안재홍, 유인영, 택연, ‘한국드라마를 빛낸 스타상’에는 장혁이 각각 선정됐다.

‘삼시세끼-어촌편4’ 고흥 득량도서 진행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어촌편4’가 다시 한 번 전남 고흥군의 득량도를 찾는다. tvN 측은 4일 “이달 셋째 주에 2박3일 동안 득량도에서 촬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촌편4’에는 지난해 10월 방송한 ‘어촌편3’의 이서진 예림 윤균상이 그대로 참여한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어촌편3’이 득량도의 가을과 겨울의 모습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여름이어서 배경에 따라 변화할 재미와 득량도의 풍경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방송은 ‘알쓸신잡’ 후속으로 8월 예정이다.

가수 헨리·그룹 NCT 텐, 태극서 최고인기상

가수 헨리와 그룹 NCT의 텐이 태극에서 상을 받았다. 이들은 3일(현지시간) 방콕 그랜드 앤 방콕 컨벤션센터 옛 센트럴월드에서 열린 ‘2016-2017 태극 헤드라인뉴스 연도풍운인물’ 시상식에서 각각 ‘연도풍운인물 최고 영향력상’과 문화오락 부문 ‘연도풍운 최고 인기 인물상’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은 중국과 태국의 사회 저명인사 및 유명 스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이벤트로, 태극 최대 유선방송 채널인 TNN24를 포함해 주요 인터넷 라이브 플랫폼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수현 ‘신비한 동물사전’ 속편 캐스팅



수현

배우 수현이 할리우드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 속편에 캐스팅됐다. 4일 미국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픽처스는 수현이 영화에 합류, 최근 영국에서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년 11월 개봉 예정인 ‘신비한 동물사전’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조앤 K. 롤링이 쓴 이야기, ‘해리포터’ 시리즈를 기초로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마법학교인 호그와트 출신인 동물학자가 뉴욕에서 신비한 동물을 구조하는 과정을 그린다. 극중 수현은 마법 서커스 단원으로 출연한다. 수현은 2015년 개봉한 ‘어벤저스:에이지 오브 울트론’, ‘다크 타워’ 등 할리우드 영화에 잇따라 출연했다.

한한령 영향, 국내 영화·애니 수출 줄어

중국의 한한령 조치로 국내 영화와 애니메이션 산업 부문의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내놓은 2017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국내 콘텐츠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든 12억7000만 달러였다. 지난해 한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한한령 조치 여파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화는 51.6%, 애니메이션은 38.1%로 크게 감소했다. 이번 보고서는 콘텐츠 시장사 116개 및 비상장사 1210개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작성됐다.

편집 | 최혜경·유진환 기자

음악 랭킹

자료:멜론
6월 26일~7월 2일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널 너무 모르고	헤이즈
2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마무
3	남이 될 수 있을까	불빨간사춘기, 스무살
4	마지막처럼	BLACKPINK
5	무제	G-DRAGON
6	처음부터 너와 나	불빨간사춘기
7	Shape of You	Ed Sheeran
8	FIVE	Apink
9	New Face	싸이
10	SIGNAL	TWICE

장동건, 3년만에 컴백...영화 두편 내놓는다

배우 장동건이 돌아온다.

2014년 ‘우는 남자’ 이후 3년간의 공백을 보낸 장동건이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 두 편의 영화를 관객 앞에 연이어 내놓는다. 오래 준비한 작업인 만큼 새로운 모습을 향한 궁금증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장동건은 3년의 공백 동안 두 편의 영화를 완성했다. 첩보액션 ‘V.I.P.’(제작 영화사 금월)와 스릴러 ‘7년의 밤’(감독 추창민·제작 풀룩스픽처스)이다. 촬영부터 후반작업까지 분주하게 소화하면서 연기활동을 이었지만 완성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탓에 의도치 않은 공백을 보내야 했다.

장동건은 8월 개봉을 준비하는 ‘V.I.P.’로 먼저 관객을 만난다. 북한에서 온 VIP가 연쇄살인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는 이야기. 장동건은 아시아를 무대로 활약하는 국가정보원 요원 역을 맡았다. 그동안 전쟁 블록버스터와 시대극, 액션 장르에서 활약해온 장동건이지만 남북한은 물론



배우 장동건이 새로운 무대로 삼은 첩보액션 ‘V.I.P.’의 촬영현장 모습. 왼쪽은 연출자 박훈정 감독. 사진제공 | 영화사 금월

그 주변 국가들이 얽힌 첩보전을 이끌기는 처음이다.

그보다 먼저 촬영한 ‘7년의 밤’은 후반작

8월 개봉 첩보액션 ‘V.I.P.’ 이어
‘7년의 밤’을 하반기 선보일 계획

지난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추석 연휴 이후 하반기 개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동건은 늦어도 연말까지 두 편의 영화를 연달아 공개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무엇보다 기존 자신의 이미지를 깨는 과감한 연기 변신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그동안 경험하지 않은 장르와 소재에 기꺼이 나선 도전 역시 눈에 띈다. 특히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인 ‘7년의 밤’에서는 딸을 죽인 범인과 그 아들을 쫓는 사이코틱 성향이 짙은 인물을 맡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관객 앞에 선다.

흥행 감각을 인정받은 감독들과 만남도 장동건을 향한 기대를 높이는 배경이다.

‘V.I.P.’에서 장동건은 남성적인 색채가 짙은 ‘신세계’, ‘대호’를 만든 박훈정 감독과 손을 잡았다. ‘7년의 밤’에서는 ‘광해, 왕이 된 남자’로 1200만 관객 동원을 이끈 추창민 감독과 함께 굵직한 서사를 완성했다. 이해리 기자

홍상수·김기덕, 7월 이례적인 신작 공개

홍감독, 김민희와 함께한 ‘그후’ 내나
김감독, 엄태웅 주연 ‘포크레인’ 개봉

홍상수·김기덕 감독이 극장가 최대 성수기에 신작을 공개하는 과감한 행보를 시작한다. 블록버스터가 대거 포진한 상황에 크게 개의치 않고 계획한 배급 일정을 지키고 동시에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하길 바라는 기대도 깔려 있다. 여기에 ‘스캔들’에 휘말린 주역들과 함께한 신작이라는 점도 눈길을 모은다.

홍상수 감독은 배우 김민희와 함께 한 영화 ‘그 후’(제작 전원사)를 9일 내놓는다. 주로 봄과 가을에 신작을 내놓고 있는 홍상수 감독이 7월에 작품을 공개하기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5월 열린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경

쟁부문에서 초청 상영된 작품으로 그 화제의 여진이 아직 남아 있다.

배우 권해효와 김민희가 주연한 ‘그 후’는 한겨울 출판사를 배경으로 네 남녀의 하루를 담고 있다.

홍상수 감독과 함께 사생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민희가 네 번째 합작한 영화이자 첫 흑백영화다. 올해 3월 개봉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통해 5만6900명의 선택을 받은 감독과 배우는 4개월 만에 또 다른 이야기로 관객을 찾는다.

김기덕 감독은 이번엔 제작자로 나선다. 자신이 제작한 ‘포크레인’(감독 이주형·제작 김기덕필름)의 27일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스캔들에 휘말려 연기 활동을 중단한 배우 엄태웅의 복귀작이다. 출연을 확정된 순간부터

엄태웅과 김기덕의 만남으로 시선을 끌었다.

영화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다. 시위 진압에 동원된 공수부대원이 퇴역 후 포크레인 운전사로 살아가며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묻어둔 진실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제작 관계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던 시위 진압군의 상처를 그린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자신의 개성을 담아내는 이들 감독들은 같은 시기 개봉을 준비하는 대작들과도 함께 영화의 간판을 내걸게 됐다. ‘그 후’는 마블스튜디오의 신작 ‘스파이더맨:홈커밍’과, ‘포크레인’은 220억원의 대작 ‘군함도’와 각각 개봉 시기가 겹친다.

그렇다고 서로 맞붙어 흥행 대결을 벌이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극장가에서는 경쟁보다 각각의 분위기와 메시지로 관객의 다양한 취향을 ‘저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권해효와 김민희(오른쪽)가 주연한 홍상수 감독의 ‘그 후’(위 사진)와 김기덕 감독이 제작한 ‘포크레인’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전원사·김기덕필름